

# “사람 노릇 바로 하려면 불교 알아야 합니다”



**다석 전기**  
-류영모와 그의 시대  
박영호 지음  
교양인 펴냄  
3만원

“류영모가 태어난 1890년에 톨스토이는 62살이었고 간디는 21살이었다. 류영모는 톨스토이와 20년 동안, 간디와는 58년 동안 같은 해와 달 아래서 숨 쉬며 살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하나인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의 전기다. 1985년 출간된 조판의 세 번째 개정판이다.

2008년 7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 철학대회’에서 함석헌과 함께 한국을대표하는 철학자로 소개된 다석(多石) 류영모는 동서 사상과 천문 지리에 능통한 대석학이었고, 우리 말과 글로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으며, 평생동안 진리를 좇아온 깨달음에 이른 대자유인이다. 젊어서 스님에게(화엄경)를 배우고 훗날(반야심경)을 때마다 독송할 정도로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했고, 어려서(맹자)를 읽고 각성한 뒤로 유학과 노장을 깊이 탐구하여 동양 사상의 대가로 통했다. 특히(종용)을 좋아하여 우리말로 옮기고 후학들에게 강의했고, 성경도 늘 가까이 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회통시켜 대통합을 이룬 구경각의 대사상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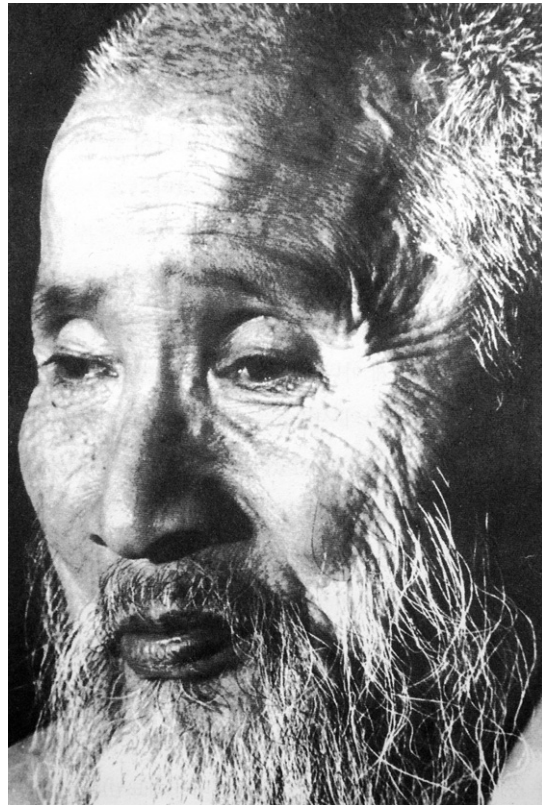
“스승 류영모가 1981년에 돌아갔으니 올해(2012)로 31년째가 된다.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 그 말을 들을 때 30살이 못되던 필자가 죽을 나이가 되었다.”

아니 넘겠다. 스승의 그 목소리, 그 모습이 그림이다.” (다석전기)는 류영모의 직제자인 박영호가 스승의 생전에 구술을 받고, 스승이 남긴 ‘다석 일지’를 필사하고, 여러 지인을 만나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다. 류영모는 예수를 잘 알려면 석가도 알아야 하고, 석가를 잘 알려면 예수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난 것부터가 괴롭(苦)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진리의 본성(다르마)은 불생불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불교를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 불성(다르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로고스(말씀)와 다르마(法)인데 둘 모두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그 이상 더 없으니 이를 믿습니다. 하느님이 진리의 근원

**동·서양의 철학·사상 아우른**  
**다석 류영모의 생애 정리**

이라는 것을 알면 삶의 맛을 참으로 알고, 삶의 맛을 참으로 알면 진리의 생명인 일나로 영생합니다. ‘우리가 좀더 오래 살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석가, 노자는 정신적으로 영생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들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는 누구보다도 석가, 예수, 톨스토이, 간디 등입니다. 석가의 사상을 두고 무신론이라거나 유리론(唯理論)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느님 사상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59년 9월 17일에 류영모는 중국 당나라의 현당



다석 류영모. 도서고급의 종교와 철학에 능통했던 석학이자, 평생 진리를 좇아 구경각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 우리말로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다.

이 한역한(반야바라밀다심경)을 우리말로 옮긴 후 그것을 가지고 ‘반야심경’ 강의를 하였다. 그 때 류영모는(반야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만 가지고 성경을 대 표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반야바라밀다심경)을 자세히 알면 불교 일반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불교는 2500년에 이르는 역사적인 사상이요, 동·서양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알려진 세계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모르고는 이 세상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아누다라삼막삼보리’라는 말은 불경에 많이 쓰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불성(다르마)을 꼬 잡는 것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 ‘입니다.’

1890년 3월 13일에 태어난 류영모는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다. 15살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20살 때 남강 이승훈의 초빙을 받아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사로 재직했다. 이 때 기독교를 전파하여 일제강점기에 오산학교가 기독교 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계기를 이루었으나 정작 류영모는 이무렵 톨스토이를 읽으며 정통 기독교 신앙에 의심을 품었다. 또한 불경과(노자)를 접하면서 성경만을 진리로 받들고 예수를 절대화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석가, 공자, 노자 등 여러 성인을 두루 받아들인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은 그의 중요한 생전 육성을 그대로 전해준다. 단순하고 소박한 금욕의 삶을 살아가 했던 류영모는 50세 무렵부터 하루 한 끼만 먹고, 하루를 일생으로 여기며 살았다.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얇은 짚나무판 위에서 생활하고 잠도 그 위에서 잤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명상을 하고 일기를 썼다. 그 일기를 모은(다석일지)는 그가 쓴 유일한 저술로 남았다. 평생 무명이나 벼로 지은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늘 “농사짓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다.”라고 말했으며, 45세 때 북한산 밑으로 이사하여 직접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 나이를 햇수로 세지 않고 날수로 하루하루 세었는데, 33,200일을 살았다. 다석 류영모의 삶과 철학, 모두 만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anholl@hyunbul.com

##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올해의 불서 대상

불출현, 당선작 총 10종 발표

초기불교경전을 토대로 교리의 실천적 재해석을 시도한 김재영 교수의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민족사)〉이 ‘2012 올해의 불서’ 대상에 선정됐다. 불교출판문화협회(이하 불출협)는 11월 28일 ‘2012 올해의 선정 불서’를 발표했다.

심사위원장인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대상으로 선정된 이 책은 불교가 민중의 고통을 구제하는 종교적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을 강조했다.”며 “저자는 교학주의, 출가주의, 선정주의에 함몰되어 사회적 실천을 등한시하는 한국불교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불교경전에 기초하여 교리의 실천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사회적 실천사례들을 제시하고,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평했다.

또한 우수상은 석담 스님의 〈한계를 넘어서(동국대출판부)〉와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김영사)〉가 차지했다.

우수상으로 꼽힌 〈한계를 넘어서〉는 독특한 방법론을 통해 한국 비구니 승가의 발달사와 현대 한국사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이어 〈영원에서 영원으로〉는 가족사에서부터 신지식들의 인간적 한계를 넘나드는 수행이야기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에 심사위원들이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이외에도 〈생각나무 1·2(스튜디오 돌 지음, 솔바람)〉 〈자기치유(조순희 지음, 정우서적)〉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빨핀 린보체 지음, 지영사)〉 〈소설 경(김정민 지음, 문학의문학)〉 〈산사는 길다(지안 지음, 불광출판사)〉 〈불교와 무의 근대(김영진 지음, 그린비)〉 〈만해 한용운(정수일 지음, 운주사)〉 등 7종이 올해의 불서에 선정됐다.

이년 2012 올해의 선정 불서 선정에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보경 스님(법륜사 주지), 하춘생 우성불교학콘텐트연구원장 등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상 이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김재영	민족사
우수상	한계를 넘어서	정인영 (석담)	동국대출판부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스님	김영사
기타	생각나무 1·2	스튜디오 돌	솔바람
	자기치유	조순희	정우서적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빨핀 린보체	지영사
	소설 경	김정민	문학의문학
	산사는 길다	지안	불광출판사
	불교와 무의 근대	김영진	그린비
	만해 한용운	정수일	운주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11/2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현,만현	현자문화사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생앤파크스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별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감지 마라	덕일	작은숲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욱	공감
8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피디빠 상계	민족사
9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10	그대 마음이 부처라네	이정범	김영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동서양 대가들의 삶과 주역

주역에게 길을 묻다 -인물로 읽는 주역

맹난자 지음 | 연암서가 펴냄 | 1만8천원



인류의 영원한 테마는 ‘인류’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테마는 ‘우리’다. 또 한 번 바꿔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알 수 없음이 끝없는 의문을 품게 했고, 그 의문들은 많은 생각들을 쏟아냈다. 그 많은 텍스트들 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손을 떠나지 않고 인류와 함께 살아오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다. 점서(古書)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으로 대접받고 있는 <주역·周易> 역시 그 중 하나다. 인류가 오랜 동안 길을 물었던, 그 흥미진진한 텍스트의 또 다른 텍스트다. 이미 수필가로 여러 권의 수필집과 주역 관련서를 펴낸 바 있는 맹난자의 역작 <주역에게 길을 묻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고 온갖 사물들이 생겨나니, 하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주역>을 완성하고 난 뒤 공자가 “앞으로 나는 말이 없이 살아가 하노라.”고 하자 그의 제자들이 놀라 “말씀을 아니 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배워겠습니까?” 했다. 그 때 공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저자는 공자의 탄신일을 기해 공모 대성전에서 치러지는 치진(致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05년 9월 24일, 한국의 유림단체인 ‘박약회(博約會)’를 따라 공자의 고향인 중국의 산둥성 곡부를 찾기도 했다. 책은 공자, 노자, 헤르만 헤세, 괴테 등 일찍이 주역을 통해 신묘한 세계를 열어보았던 동서양의 대가들을 통해 주역을 다시 들여다본다.

컴퓨터, 로켓의 발사 원리가 주역에서 비롯되며, 주역은 첨단과학의 진리인 불확정성 원리, 카오스 이론, 프랙탈 구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우주론적 철학이다. 또한 흥운을 물리치고 길운을 만나고 싶은 체세의 지혜를 담고 있어, 점복(占卜)을 위한 원전(原典)과도 같다.

“역”이란 말은 ‘바뀐다’, ‘변한다’의 뜻으로 <주역>은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책이다. <주역>이 인류의 손을 떠나지 않고 인류와 함께 살아온 것은 그 속의 문장들이 늘 덕을 닦고 괴로움을 이겨내는 지혜의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역>에게 길을 물었고, 묻고 있다. <주역>의 도는 이렇듯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의 접근은 실로 용이치 않다. 이에 저자는 인물 중심의 보다 평이한 서술로서 그 다각적인 응용을 통해 <주역>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구의 생태환경이 위협에 처한 지금, 우리는 자연의 근원인 도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뿌리는 위협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오천년 지혜의 서 <주역>이 그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인류가 늘 길을 물어왔던 고전 <주역>에게 다시 한 번 길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박재원 기자

www.minjoksa.org

#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용장제책을 하여 360°로 펴볼 수 있습니다.

교재 01

##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히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매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